

다큐멘터리 최초, 부평 미군기지의 문을 열다

글. 임재형 OBS 경인TV PD · 콘텐츠국 제작팀

특집 다큐 **안녕 APO 901**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드르르르륵”

“어어? 여기 철거 중인데요?”

“어? 지난주까지만 해도 철거하려면 좀 걸릴 거겠는데?”

‘드림보트’

에스컴시티(ASCOM, 캠프마켓을 비롯한 부평 미군 기지를 일컫는 당시 명칭)의 가장 전성기, 사람들이 늘 북적이던 미군 전용 클럽이자 부평 신촌의 마지막 남은 화려한 시절의 흔적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드림보트’의 철거는 이번 다큐멘터리의 험난한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였다. 신기루 같은 ‘지역의 이야기’,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이번 다큐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다.

APO 901, San Francisco, California

부평 미군기지, 통칭 ‘캠프마켓’

사실 ‘캠프마켓’의 존재는 인천 부평사람이 아닌 내 입장에서는 조금 이상한 일이었다. 첫 번째로는 33만 제곱킬로미터의 그 거대한 면적에 놀랐고, 두 번째로는 그 정도의 군부대가 도시 한가운데에서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데 지역 분들 어떤 누구도 그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늘 있던 동네 뒷산이나 개천의 존재처럼 부평의 미군기지의 존재는 부평시민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용산의 미군기지와는 또 다른 존재가 바로 ‘캠프마켓’. 캠프마켓을 취재하면 할수록 캠프마켓의 쓰임은 전략적 위치의 주둔지가 아닌 단순히 ‘미군의 급양’을 담당하는 즉, 빵 공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임 PD, 여기 사실은 우리 땅도 아니에요. 여기 주소가 샌프란시스코예요. 영등포는 샌디에이고고... 근데도 이걸 모르는 부평시민들이 태반이에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쫓고 있던 주민분이 말씀해주신 이 한마디가 모든 다큐멘터리의 실마리가 되었다.



‘과연 죽한 미군의 존재는 정치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지역민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이 땅의 기구한 역사를 소재로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해보아겠다는 이번 다큐의 방향성이 정해진 순간이었다. 더군다나 이 땅은 옛 이름은 ‘일본 육군 조병창’. 동경을 제외하고는 태평양전쟁을 준비하던 가장 큰 규모의 일제의 군수 공장이 있던 곳이 아니었던가. 이와 때맞춰 캠프마켓에서 거대한 지하터널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를 계기로 지역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지역 사학자들, 부평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이곳 지역 주민들, 그리고 뜻있는 부평구와 인천시의 공무원들이 이번 다큐의 소식을 듣고 하나둘 전화를 주기 시작하였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혼혈아 입양 봉사를 해 오신 서재송옹을 취재 중, 생생히 전해 들을 수 있었던 부평 군수 공장에서의 강제징용의 경험담은 정말 행운이었다. 죽은 줄 알았던 지역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신기루 같았던 애스컴시티

하지만 이야기가 매력적이라 해서 다큐 제작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 해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미군기지와 함께 맞닿아 오랫동안 살아온 부평 신촌과 삼릉은 이미 그 옛 모습을 잃은 지 오래... 그나마 남아있던 옛 건물들도 하루가 다르게 철거되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당시 사진들도 극히 제한적으로 확보되었고, 그나마 있는 사진 자료들은 저작권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였다.

관련자들의 진술도 문제를 드러냈다. 추억은 과장되거나 미화되기 마련. 관련자들의 증언들도 조금씩 어긋나거나 일관성이 없었다. 가장 공을 들였던 미군기지 출입 촬영은 코로나로 인해 미군 측이 접촉조차 거부했다. 절망적인 상황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매력적인 이야기는 이야기꾼의 근성을 자극하는 법. 끊임



없이 미군 측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담당 시청과 구청의 주무관님들을 설득해가며 방법들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다. 진정성만을 가지고 발버둥 치는 우리 제작팀이 안쓰러웠을까? 관계자분들의 협조에도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다. 또한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 펼쳐놓고는 이야기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특히 부평 역사박물관은 확보해둔 수십 장의 희귀한 당시 사진들과 필름들을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기꺼이 제공해주시기도 했다. 영상 자료원에서 우연히 찾은 신상옥 감독의 오래된 영화 속에서 1950년대 캠프 마켓의 옛 풍경을 찾은 건 행운이었다.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부평 미군기지 앞 클럽들에 대한 증언자도 나오기 시작했다. 증언들이 엇갈리긴 했지만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짙게 배 나오는 증언들이었다. 현미, 윤항기, 김희선, 김홍탁, 최선배 등 누구나 알 법한 유명 가수 선생님들도 이곳, 애스컴시티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셨다. 일관성이 떨어지는 증언들은 배제하고 이곳 애스컴시티의 최전성기, 1950년대와 60년대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방향으로 촬영이 시작했다.

스마트폰으로 다큐멘터리 촬영을?

촬영이 시작됐다.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만 옛날을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가 싫었다. 어쨌거나 당시의 애스컴시티는 대한민국에서 당대에 가장 화려했던 곳이 아니었던가. 요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느낌을 주기를 바랐다. 일반 다큐식의 편집이 아닌 화려한 편집으로 부평을 소개했으면 했다.

음악에서부터 CG, 편집 방식 등 일반 다큐에서 사용되지 않는 요소들을 많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인터뷰만 있어 막막했던 촬영에 각박이 잡혀 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발목을 잡은 건 역시 코로나였다. 어렵게 섭외한 인터뷰 대상자들은 코로나를 이유로 인터뷰를 취소했다. 촬영허가를 받은 곳들도 마찬가지였다.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정말 다큐멘터리 자체를 제작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섭외된 분들이나 장소는 최대한 빨리 촬영을 끝마쳐야 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 촬영감독은 촬영에 있어 부분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 많은 곳에서의 촬영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으니 스마트폰으로 촬영한다면 크게 이목을 끌지 않아도 되고, 기동성도 살릴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었다. 해보지 않은 시도에 조금 불안감은 있었지만,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편집상에서 살려보기로 하고... 부평 지하상가를 시작으로 일부 스마트폰 촬영을 시작했다. 결과는 대성공. 여러 명의 모니터링 결과 크게 톤과 색감의 차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편집과정에서 프리미어에서의 컬러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도 차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기술의 발전이라니...)



다큐멘터리 최초, 미군기지 문을 열다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 코로나와 더위에 지쳐가던 제작팀에 낭보가 전해졌다.

토지정화 작업을 하고 있던 미군기지, 조병창 건물에 출입이 가능하다는 통보였다. 비록 일제 강점기 때부터 사용된 건물에 80여 개 동 가까이 남아있는 캠프 마켓 시설의 극히 일부분이지만 그것만이라도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지체 없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 넓은 땅 대부분은 토지정화 작업으로 다 파헤쳐져 있었지만 조병창 건물만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

었다. 이곳 주민들이 몇 해 동안의 토론을 통해 건물 일부는 꼭 남겨 후세에 전달하자는 의지와 노력이 반영된 결과였다.

질퍽거리는 땅을 피해, 수풀이 무성하게 자란 조병창 건물을 마주 하니 조금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막상 전해 들던 이야기를 듣는 것과 현장에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다. 지난 8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땅이 아니었던 곳. 아픈 시대 상황으로 인해 펼쳐졌던 우여곡절의 역사가 건물 곳곳에서 속삭이고 있었다.

마침내 오랫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곳, 캠프 마켓 내 조병창 건물의 문을 열었다. 소름 끼치게 빠걱거리는 철문 소리. 텅 빈 곳의 고요를 깨는 비둘기 날갯소리. 때론 공간은 인간의 말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무거운 문을 열자마자 바로 알아챌 수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전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갖 문화가 피어나던 애스컴시티,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면서도 단 한 번도 시민들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던 이 땅의 기구한 역사가 이곳에서 음악으로써 함축적으로 표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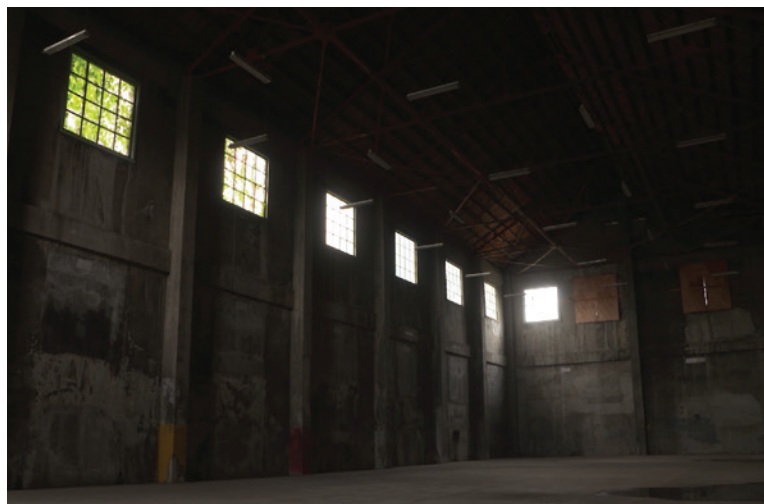
애스컴시티를 노래하다

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다큐멘터리 속에 공연을 녹여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공간이 주는 힘을 믿었다. 스토리상으로 꼭 필요한 음악들을 하고 있는 가수들을 고르고 섭외작업을 시작했다. 많은 장비를 들여야 하는 만큼 관계 당국과의 복잡한 협의가 필수인 상황에서 인천시와 부평구의 담당 주무관들이 발 벗고 나서 준 결과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었다.

넉넉하지 않은 제작비 상황 속에서 괜한 일을 한 게 아니었나 싶었다. 하지만 인천 출신의 여러 스태프와 이번 다큐멘터리의 취지에 공감하는 가수들의 격려와 희생이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었다. 단순히 역사만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그 동력이었다.

마침내 녹화 당일.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인원만이 출입할 수 있었지만, 소수정예의 믿음직한 스태프들은 열악한 현장 상황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중계차가 출입할 수 없었던 만큼 촬영감독과의 사전 협의와 차질 없는 음향점검은 필수였다. 무대가 따로 없는 상황에서도 경험 많은 조명감독의 노력 덕에 공간과 잘 어울리는 세팅이 가능했다. 오랜 시간 기구한 역사가 채워졌던 조병창 건물에는 이제 현재의 노랫소리를 채울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1960년대, 이곳 애스컴시티에서 처음 음악을 시작하셨다는 우리나라 재즈 1세대 최선배 선생님의 담담한 트럼펫 소리가 길게 흘러나오기 시작한 순간, 그곳의



모든 이들은 모두 같은 감동을 느낀 듯 멍하니 연주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나직하게 울려 퍼지는 트럼펫 소리는 긴 시간 기구한 역사를 바라보고 견뎌야 했던 이 땅의 답답한 울음소리와 같았다. 그리고 공간과 음악이 주는 감동은 이 땅에서 어떻게 미래를 펼쳐나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속삭임이었다. 땅의 역사만큼이나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번 다큐멘터리의 어려움은 그날의 녹화로 한 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지역의 역사, 그리고 지역 방송국

이번 다큐멘터리와 같이 지역사를 돌아본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료를 확보하는 것 역시 보통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재개발을 앞둔 곳은 다양한 욕망이 뒤섞여 본질을 분간해내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지역사의 발굴은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지역사라는 것은 결국 지역민의 자존감의 문제이자,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끌어낼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고 모두가 생각하지만 현대사회의 욕망은 중앙으로 향하기 마련이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지역 언론, 지역 방송국은 그 역할을 해내야만 한다. 양질의 콘텐츠, 지역의 시선에서 보편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개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다큐멘터리는 지역방송의 본질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는 데서 그 의미를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요즘의 미디어 환경에서 이렇게 지역에 기반을 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다. 자본은 더 큰 대중을 향해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지역민의 시선에서 현대사와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이번 다큐멘터리가 앞으로 10년 뒤에도 나올 수 있을까? 쉬이 대답하기 어려운 일이다. 만드는 입장에서는 어렵지만 재밌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인지를 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다. 현재 중앙을 기반으로 설계된 방송정책과 방송시장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공공의 책무를 맡겨놨음에도 평가는 중앙의 시장과 똑같은 곳에서 받으라는 방송정책 당국. 지역방송이 출범된 지 20여 년이 훌쩍 넘었지만 지역방송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 중이다. 그리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지역 언론과 방송사들은 더욱더 음영 속에 가려져 가고 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지역사 동료 여러분 힘내시라. 우리는 돌아보지 않아도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어쩌면 마지막 지역방송의 종사자가 될지라도. 



(그날의 감동이 궁금하신 분들은 OBS 다큐,
유튜브 채널의 공연 풀 영상으로 느껴보세요).
안녕 APO 901 샌프란시스코 유튜브 링크